

외자계 완성車업체, 하반기 ‘친환경·SUV’ 신제품 러시

쌍용 중형 SUV ‘토레스’ 사전예약
르노삼성 ‘XM3 하이브리드’ 출시
한국지엠 픽업트럭 등 라인업 강화

르노자동차코리아와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등 국내 외자계 완성차 3사가 올 하반기 기분좋은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3사는 그동안 신차 부재와 반도체 칩 부족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이 메르세데스-벤츠, BMW에 역전되며 자존심을 구겼다. 하지만 올해는 인기 차종인 SUV 신제품을 선보이며 내수 시장에서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범정부관리와 인수 무산 등 위기 속에서도 사활을 걸고 개발한 중형 SUV ‘토레스’의 사전예약을 6월부터 시작한다. 토레스는 과거 국내 SUV 시장을 주름잡았던 무쏘의 후속작으로 지난달 17일 티저 이미지와 영상이 공개된 이후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쌍용차의 ‘SUV 명가’ 자존심을 지켜줄 모델이기도 하다. 토레스 전면부에는 버티컬 타입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돼



쉐보레 SUV 라인업 타호(왼쪽부터), 트레일블레이저, 트랙스, 이퀴녹스, 트래버스.

강인하고 와일드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후면부는 스페어 타이어를 형상화한 테일게이트 가니시를 적용해 정통 SUV 이미지를 연출했다. 쌍용차는 과거 티볼리 출시로 후자전환에 성공한 것처럼 이번엔 토레스가 경영정상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쌍용차의 재매각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쌍용차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6월 2~9일 인수의향서를, 24일 오후 3시까지 인수제안서를 받는다. 쌍용차는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

행하고 있다.

공고 전 인수 예정자는 지난 13일 KG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마감일까지 새로운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KG컨소시엄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없다면 KG컨소시엄이 쌍용차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다. 다만 쌍방울그룹 등은 경쟁 입찰 참여를 예고한 상태다.

르노자동차코리아는 올 하반기 소형 SUV XM3의 친환경 모델 ‘XM3 하이브리드’를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XM3하이브리드는 ‘르노 아르카나’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6월 세계 최대 친환경자동차 시장인 프

랑스와 영국 등 유럽에서 먼저 선보였다. 이 모델은 유럽에서 가장 잘 팔리는 르노의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지금까지는 전량 해외로 수출했지만 하반기에는 내수 시장에서도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르노코리아는 올해 3월 취임한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의 지휘아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차 개발에도 속도를 높인다. 르노코리아는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볼보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지리그룹과 합작 친환경 하이브리드 신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올해 다양한 신차 출시를 통한 라인업 확대에 내수 시장에서 반

등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초 플래그십 SUV 타호를 출시한 한국지엠은 중형 SUV 이퀴녹스의 신형 모델을 6월 국내 시장에 선보인다. 신형 이퀴녹스의 가장 큰 변화는 파워트레인이다. 디젤 모델 대신 가솔린 모델이 투입됐다. 고효율 친환경 1.5l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과 배기량과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퍼포먼스와 효율은 높이는 지엠의 라이프사이징 기술이 적용됐다. 이퀴녹스는 토요타 라브4, 폴크스바겐 티구안, 혼다 CR-V, 지프 체로키 등 경쟁이 가장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 올해 1분기 콤팩트 크로스오버 부문 3위를 차지한 인기 모델인 만큼 내수 시장에서의 흥행도 기대된다.

또 올 하반기에는 풀사이즈 럭셔리 픽업트럭인 GMC 시에라를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신형 전기차 볼트EUV의 판매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볼트EUV는 4월부터 고객 인도가 시작됐는데, 완충 시 403km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내수 판매량 확대와 해외 수출 증가에 따른 우리 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메르세데스-벤츠, GLC 3세대 완전변경 모델 공개

4MATIC 마일드·플러그인 HV... 100km 전기주행 ‘거뜰’

오프로드 주행 위한 다양한 기능 탑재
차세대 인포 시스템 ‘MBUX’ 갖춰

메르세데스-벤츠는 2일 중형 SUV 베스트셀러인 GLC의 3세대 완전 변경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C’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더 뉴 GLC는 역동적인 디자인과 럭셔리한 인테리어의 조화, 이전 세대 대비 넓어진 적재공간, 최신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며 전방위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뤄졌다. 여기에 전 모델 기본 탑재된 4MATIC 사륜 구동 시스템은 물론, 오프로드 주행 모드 및 지형 고도와 기울기 등 오프로드 주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는 새로운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C.

진 오프로드 스크린 등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었다.

특히 이번에 출시되는 GLC의 전 라인업은 48볼트 시스템 기반의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전기 주행 거리가 100km 이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만 구성

됐다.

더 뉴 GLC의 디자인은 이전 세대 대비 60mm 길어진 차체로 더욱 다이내믹하고 파워풀한 비율을 자랑하는 동시에,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연결된 새로운 전면부 디자인으로 차량의 폭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외관에는 크롬 장식 및 무광 그레이의 스포티한 루브르가 적용된 라디에이터 그릴이, AMG 라인(AMG Line)에는 메르세데스-벤츠 패터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된다.

운전석에는 12.3인치 고해상도 LCD 스크린이, 중앙에는 11.9인치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자리 잡고 있으며 메르세데스-벤츠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

템 MBUX가 탑재되어 직관적이고 디지털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더 뉴 GLC의 전 라인업에는 4기통 가솔린, 디젤 엔진과 결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했다. 2세대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와 48볼트 시스템이 결합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글라이딩 및 회생 제동을 지원하며 높은 효율성을 발휘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31.2 kWh의 배터리와 최대 출력 100kW, 최대 토크 440Nm를 발휘하는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다이내믹한 퍼포먼스를 선사하는 동시에 WLTP 기준 100km 이상의 전기 주행 거리를 자랑한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비스포크 그랑데 AI’ 특판

비스포크 그랑데 AI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삼성전자는 6월동안 삼성디지털프라자와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에서 ‘그랑데 AI와 사는 세상’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국내 최대 용량 25kg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 출시를 기념해 마련됐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 25kg 모델과 건조기 20kg 올인원 컨트롤 모델을 패키지로 구매하면 최대 20만원 상당 혜택을 제공한다. 2022년형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 24kg 모델과 비스포크 그랑데 AI 건조기 20kg 올인원 컨트롤로 구성된 패키지를 구매하면 최대 10만원 상당 혜택을 준다.

/김재용 기자 juk@

쌍용차, ‘올 뉴 렉스턴 시그니처’ 출시

브랜드 론칭 20주년... 상품성 강화

쌍용자동차가 렉스턴 브랜드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시그니처 모델을 출시한다.

쌍용차는 대형 프리미엄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렉스턴 론칭 20주년을 맞아 상품성을 강화한 ‘올 뉴 렉스턴 시그니처’ 판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올 뉴 렉스턴 시그니처는 렉스턴의 최상위 트림인 블랙에서만 적용한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과 블랙 하이그로시 패션 루프랙, 블랙 하이그로시 로워범프 등을 기본 적용해 고급적 블랙 외관 스타일을

연출했다. 또 프레스티지 모델을 바탕으로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과 운전석·동승석 통풍 시트, 올 뉴 렉스턴 구입 고객 중 95% 이상이 선택한 ‘4TRONIC(4륜구동) 시스템’ 등이 기본으로 적용됐다고 쌍용차는 전했다.

올 뉴 렉스턴 시그니처의 판매 가격(개별소비세 인하 기준)은 최상위 모델인 더 블랙의 외관사양과 100만원의 고급 옵션인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포함해 4528만원이다. 이 외 렉스턴 모델은 ▲럭셔리 3707만원 ▲프레스티지 4035만원 ▲더 블랙 4988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올레드TV, 뒷면까지 활용하세요”

오브제 신제품 선보... 책꽂이 등 사용

LG 올레드 TV가 공간을 뛰어넘는다.

LG전자는 6월6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최근 오브제 컬렉션 신제품(모델명 LX1)을 새로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이 모델은 올레드 예보에 공간 인테리어나 감성을 더해 만들어졌다. TV 후면을 책꽂이로 사용하거나 소품을 배치하는 등 연출할 수 있다. 탈부착이 가능한 액세서리 수납함을 이용하면 셋톱박스 와 멀티탭 등 주변 기기도 함께 보관



LG 올레드 TV 오브제 컬렉션 신제품 /LG전자

가능하다. 전선도 스탠드 다리 내부에 삽입할 수 있다.

전 후면에는 고급 패브릭 소재로 디자인도 강화했다. 곡선 디자인과 아트 스탠드로 인테리어 오브제 역할도 해낸다. /김재용 기자

한국지엠

무이자·현금 등 車 구매 지원

한국지엠 쉐보레가 6월 ‘쉐보레와 함께하는 활기찬 6월’ 프로모션을 통해 국내 고객에게 차종별 다양한 할부 혜택, ‘러브 패밀리’ 프로그램 등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쉐보레는 말리부·트레일블레이저·스파크 등 자사 차종 구매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 또는 장기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고객은 현금 지원과 할부 혜택이 결합된 콤보 할부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최대 180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다자녀 양육 가정, 다문화 가정, 신혼부부 및 교사,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러브 패밀리’ 특별 프로그램을 6월에도 이어간다. /양성운 기자